

양곡창고 → 야구연습장... 해남 청년 창업공간 변신

원예체험장·카페 등 조성 ESG 실천 프로그램 도입

해남군 면단위에 비어 있던 양곡창고가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창업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자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면단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실시 삼산면에 위치한 양곡창고 2동을 실내 야구연습장과 원예체험장 등으로 조성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인 농협의 옛 양곡창고 2개동을 리모델링해 실내야구연습장과 원예체험장, 카페 등으로 조성했다.

양곡창고 2개소 중 330㎡는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피칭머신이 구축돼 있어 개인 타격, 송구 훈련이 가능하며 사회인 야구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날씨와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관 시스템도 도입해 정기적인 연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65㎡의 공간은 힐링 원예 체험장 및 카페로 조성돼 치유와 힐링이 되는 다양한 원예 체험 및 ESG 실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해 음료를 직접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두 공간은 6월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등 어려움을



해남군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실내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소하고 방치된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촌 주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운동 무안군, 매월 첫째 금요일 지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공직자, 무안군 소상공인연합회, 물가 감시 요원 등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운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홍보 △착한가격업소 사장님 격려(‘콩주발 목은지뚝배기’ 아침 식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다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은 지난달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자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외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10개소를 추가하여 총 15개소 지정·운영 중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추진해 공직자, 관내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어가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역 바로알기 역사 강좌 목포시, 8일부터 운영

목포시는 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목포 역사와 이야기’ 강좌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강좌는 지역 전문가 강의를 통해 목포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8일~7월6일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까지 목포미술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총 6회(이론 5회·현장학습 1회) 진행된다.

강사는 목포대 최성환교수와 세한대 양세형교수가 ‘목포의 역사’를, 엄수경작가가 ‘목포의 문학’에 대해 강의하고 박찬일 셰프가 ‘목포의 맛’을,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가 ‘목포의 음악’에 대해 강의한다. 관공해설사의 현장학습도 진행된다.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목포시 인재육성과(061-270-8532)에 방문접속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 목포시 평생학습포털(https://lifelong.mokpo.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7일까지 전자우편(sarah82@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여수축림1지구 준주거시설 용지 전남개발공사, 최고가 낙찰 공급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축림1지구 내 투자 가치가 높은 용지를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급한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공급대상 토지는 여수축림1지구 중심에 위치한 준주거시설용지 22필지(1만467㎡)다.

해당 용지는 향후 공급 예정인 상업용지와 근접해 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둘러싸고 있어서 소비수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리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원 등 교육관련 시설 입지로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은 오는 19~20일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의는 전남개발공사 분양 보상처(061-280-0410)로 하면 된다. 공사는 2024년 상업시설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간재 기자



영암군가족센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061-463-2928)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가족센터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희망 기관은 영암군가족센터

영암군가족센터 제공

목포시 관광브랜드 디자인 ‘목포랑’ 확정

목포시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목포 관광브랜드 디자인(BI)을 ‘목포랑’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응용디자인과 상품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목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및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BI를 개발했다.

그동안 국내외 관광트렌드와 콘텐츠·역사·장소·사람 등 지역환경을 분석하고, 목포만의 관광BI에 대해 학계·관광업계 종사자·전문가·MZ세대 등에 의견을 수렴했다.

목포랑, 아따 목포, 와! 목포, 목포랑께, ok목포 등 5개 디자인(안)을 도출했다.



으며 지난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자인(BI) 선호도 조사를 했다. 1만4402명이 참여해 목포랑 32.2%, 목포랑께 21.4%, 아따 목포 21.2%, ok목포 13%, 와! 목포 11.6% 순으로 선호했다.

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목포랑을 BI로 확정했다. ‘목포랑’을 토대로 국문 및 영문 두 버전을 개발했다. 국문 표기 목포랑은 목포와 랑을 쉼표로 구분하면서 감동과 낭만을 표현하는 하트 모티브를 결합했다.

영문 표기 ‘Romantic Port MOKPO’는 끝부분이 돌출된 형태인 서체와 주황색 계열로 표현함으로써 컬러의 대비감을 통해 눈에 띌 수 있게 했다.

도시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와 이번에 제작된 관광브랜드 목포랑을 연계하면서 브랜드 론칭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물과 관광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 목포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랑’은 지역명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낭만항구 목포와 연계해 관광거점도시 목포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정월 페스티벌 10월까지 연장

완도군은 ‘2023 전남도 정월 페스티벌’을 당초 31일까지 열 예정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전시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완도에서 개최된 세 번째 전남 정월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유치 당시부터 기대를 받았다.

군은 기획단계부터 바다와 정원을 어

우러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바다와 관련된 소재를 정월에 반영하는 등 완도만의 정원을 조성했다.

완도 특산물을 난대 숲 정원에서 즐기는 대표 정원(가든 레스토랑) 1개소, 바다를 조망하는 작가 정원(조망 정원) 4개소, 해수욕장 구명환에서 모티브를 딴 참여 정원(튜브가든) 30개소, 완도 읍면을 상징하는 섬자리 정원(보트 가든) 12개

소 등 약 5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볼거리를 제공했다.

페스티벌 현장 전체에 간 인조 잔디는 바다, 튜브가든 등과 어우러져 색다른 경관을 연출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대표 정원인 가든 레스토랑도 많이 찾는 장소가 됐다.

신규화단 및 포토존 추가 설치, 여름꽃 식재 등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버스킹 등 부대 행사도 매달 2회 이상 개최해 정원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해남군 옥천·계곡면 일원

해남군은 옥천, 계곡면 일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다음달 착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70%·군비 30%)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관로 41.26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진군, 영암군 인근 지자체와 옥천, 계곡 일원의 광역·지방상수도가 연결돼 옥천, 계곡면 일원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가뭄 등 비상상황시 해남군 전체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 수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천일염 위탁판매 업무협약 신안군-남신안농협

신안군·남신안농협·천일염생산자협의회(하의·신의·장산)는 지난달 30일 신의면 복지회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권오연 부의장, 유통농협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 안정 유통을 위한 위탁판매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위탁 판매 업무협약은 남신안농협이 중간 유통상인을 거치지 않고 남부권(하의·신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위탁 판매, 품질관리는 물론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천일염 생산자들과 상인 간 직접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을 통한 위탁 판매 형태로 유통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장래훈 남신안농협조합장은 “신안군 천일염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남부권(하의·신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신안에서 처음으로 위탁 판매를 하게 됐다”며 “어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일반상인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